제4실 | 악기 | 전시해설

N-102 칠현금

현악기의 일종인 금(琴)을 만드는 재료의 산지로 유명한 쓰촨성 펑저우에서 중국 당시대(724년)에 제작된 높은 수준의 칠현금입니다. 몸통 안쪽에 적힌 글을 통해 제작지와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동나무로 만들었으며 표면을 옻칠로 마감했습니다.

N-107 채색 그림 북통

기악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북통입니다. 나무로 만들었으며, 표면에는 연꽃과 보상화무늬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N-108의 채색 그림 북통과 함께 제작 당시의 화사한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나라시대의 귀중한 작품입니다.

N-108 채색 그림 북통

N-107의 채색 그림 북통과 마찬가지로 기악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목제 북통입니다. 가운데 허리 부분에는 연꽃잎무늬를, 다른 부분에는 구름과 보상화무늬를 넣었습니다. 나라시대에 걸맞게 양감이 풍부하고 당당한 자태입니다.

N-109 흑칠 북통

아악에 사용된 북통입니다. 불룩한 부분 안쪽에 먹으로 적힌 글을 통해 호류지에서 쇼토쿠 태자의 기일에 거행되는 법회인 쇼료에를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오동나무를 회전축에 끼워 돌려가며 깎아 형태를 잡은 후 바깥쪽엔 흑색의 옻을 칠했고, 안쪽은 가공하지 않은 실용적인 만듦새를 보여줍니다.

N-106-1 갈고

갈고는 몸통 양쪽에 가죽을 대고 줄을 매어 조립한 뒤, 나무 받침 위에 놓고 양쪽을 채로 쳐 연주하는 북으로, 아악에 사용되었습니다. 목제 북통의 바깥면에는 사자와 모란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.

N-110 갈고 받침

갈고를 놓고 연주하는 데 사용하는 나무 받침으로 붉은 옻을 칠했습니다. 상판 양끝으로 돌출된 부분의 안쪽에 파인 홈과 북 가죽 부분의 위치가 딱 들어맞는 점으로 보아 N-106-1의 갈고와 한 세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

N-104 샤쿠하치

샤쿠하치는 당악에 사용되는 악기로 세로로 부는 피리입니다. 마디가 세 개인 대나무에 반달 모양으로 취구(부는 곳)를 냈고 앞면에 5개, 뒷면에 1개의 지공(구멍)을 뚫었습니다. 현대의 샤쿠하치와는 지

공 개수 등이 다른 고대 특유의 악기로, 쇼소인 보물 가운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.

N-105 횡적

가로로 부는 피리로 일본에서는 류테키라고도 하며, 샤쿠하치와 더불어 당악에서 사용되었습니다. 지공(구멍)을 7개 내었고, 취구(부는 곳)와 첫 번째 지공 사이에서 2개의 대나무를 연결해 만들었습니다. 구멍을 제외한 표면에는 벚나무 껍질을 감았습니다.

N-103 금주

금주는 금이나 쟁의 현을 받치고 음정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. 이 전시품은 신라금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표면에는 옻을 칠했으며, 잘게 자른 금박으로 나뭇잎처럼 생긴 무늬를 표현하고 윗부분의 테두리를 꾸몄습니다.